

# Legal Times

VOL. 57  
April 2013

www.legaltimes.co.kr



검정고시 출신  
첫 로펌 대표  
박영립 변호사

**“공익활동 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외형 대신 내실’ 활동 늘리는 IHCF  
5년만에 ‘M&A 톱 10’ 찍은 법무법인 현  
마도로스 출신 김경화 변호사의 영국 성공기



ISSN 1976-488X 정가 9,000원

(주)리걸타임즈

# 지평지성,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한국 로펌 최초...미야와디 뱅크 타워에 위치  
유정훈, 고세훈 변호사 등 전문인력 10명 상주

2012년 5월 유정훈 변호사가 상주하며 미얀마에서 본격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시작한 법무법인 지평지성이 양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한국 로펌이 미얀마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는 지평지성이 최초로, 지평지성은 미얀마 양곤에 현지법인 'JIPYONG JISUNG MYANMAR'를 설립, 3월 12일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지법인 대표는 지평지성의 캄보디아 사무소장을 역임한 유정훈 변호사. 또 2007년 미국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데 이어 2012년 건국대 로스쿨을 졸업한 고세훈 변호사 등 한국 전문인력과 변호사와 회계사·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미얀마 전문인력 등 모두 10명의 전문가가 현지법인을 구성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미얀마 현지법인에 상주하는 유정훈 변호사(좌)와 고세훈 변호사

“ 개방 가속화되는 미얀마  
법령미비 실무 혼선 여전 ”

## 현지 로펌, 회계컨설팅 법인과 제휴

이와 함께 서울 본사의 미얀마팀 변호사 10여명이 서울과 양곤을 왕래하며 업무를 지원하며, 2012년 1월 시작된 미얀마 현지 로펌인 NK Legal, 회계컨설팅 법인인 WIN Consulting과의 전략적 제휴관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평지성 관계자가 설명했다. 사무소도 현지법

**지평지성**  
JIPYONG JISUNG

인을 설립하며 양곤의 미야와디 뱅크 타워(Myawaddy Bank Tower)로 확장 이

전했다.

미얀마는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한국 기업의 미얀마 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지평지성은 작년부터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등을 상대로 40여건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평지성의 양영태 대표변호사는 “미얀마는 법령 미비, 실무의 혼선, 로컬 법률사무소의 부족으로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평지성 미얀마 현지법인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현장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